광주, '일하는 청년' 저축 돕는다

'단기 청년비상금통장' 참여자 모집
만 19세 이상·소득 167만원 이하
16일부터 30일까지 시청서 접수

광주광역시는 임금소득이 낮은 근로청년의 채무를 예방하고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소액의 단기 저축을 지원하는 '청년비상금통장'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청년비상금통장'은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10개월 동안 저축하면 시가 100만원을 더해서 200만원의 저축을 마련해주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실시한 '광주지역 청년부채 실태조사' 결과, 청년들의 부채문제가 소액대출에서 시작돼 악성화된다는 점에 착안해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당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저축액이 100만원 미만이라는 청년이 2명 중 1명이었고, 생활비를 제외하고 여윳돈이 전혀 없다는 청년이 4명 중 1명으로 나타났다.

'청년비상금통장'은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생활비를 지원하는 '광주청년드림수당'과 구분해 근로빈곤 청년에게 지원된다.

광주지역 20대까지의 청년 근로자 75%가 2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어 저소득에 따른 생활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청년비상금통장' 참여 대상은 광주에 살고 있는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근로청년이고, 세전 근로소득이 60만2000원 이상 167만2105원 이하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고, 시청 1층 민원실 내 '열린소통창구'을 직접 방문해 제출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대리인 접수도 가능하며 청년들이 이용하기 쉽게 토·일요일도 접수를 받는다.

최종선정자는 오는 8월 7일 발표할 예정이며, 경제와 금융교육, 참여자간 소모임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승철 시 청년정책과장은 "100만원, 200만원의 여윳돈이 없어 빚을 지는 청년들이 많다"며 "작지만 저축 성공의 성취감을 갖게 하고,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지가 청년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봉채영 기자 bcy2020@metroseoul.co.kr

장성군 청소년수련관 전경.

장성군 "스마트폰 대신 엄마 손잡고 놀자"

장성군이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은 청소년들을 위한 치유 캠프를 진행한다.

장성군은 최근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2018년 스마트가족치유캠프' 공모사업에서 장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선정돼, 이에 참여할 청소년 가족을 모집중이라고 4일 밝혔다.

'2018년 스마트가족치유캠프'는 스마트폰 이용이 차단된 환경에서 집단 상담과 부모교육, 지역별 특색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이 자기 관리 능력을 키우고 가족간의 대화 방법을 알려주는 캠프다.

캠프는 여름방학 기간인 다음달 10일부터 12일까지 2박 3일 동안 보성군청소년수련원에서 열린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자녀를 둔 장성군민은 누구나 참여 할 수 있고, 청소년과 부모 1인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약 15%가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감을 느끼고 자기조절을 어려움을 겪는 등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이번 캠프는 청소년의 건강한 스마트폰 사용습관을 키워줄 뿐 아니라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 개선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며 "선착순으로 25가족을 모집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가족은 서둘러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캠프 참여 신청과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061-393-1388)로 문의하면 된다.

/전남 장성=봉채영 기자

"세계인의 수영축제, 성공적으로 열리길"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기원
중국·일본 예술단 초청 공연 열려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공연이 광주에서 펼쳐진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은 중국 취안저우 고갑희극단과 일본 요코하마 예술단이 6일(오후 1시)과 7일(오후 7시) 각각 빛고을노인건강타운과 5·18민주광장에서 희극과 댄스 무대를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무대는 2019년 7월12일부터 28일까지 광주 곳곳에서 펼쳐지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을 위해 마련됐다.

취안저우시 고갑희극단은 중국의 전통극을 선보인다. 고갑희극단은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어릿광대들이 인생의 갖가지 희로애락을 연기하는 내용이 많은 점이 특징이다.

광주 공연에서는 '정산왕 타난가'와 '순성' 2개 작품을 연기한다.

'정산왕 타난가'는 송나라때 조정의 명신이었던 문관인 방가와 무관 호가의 갈등을 해학으로 풀어냈으며 '순성'은 북송시기 말단 관리가 결혼식장에 온 황제 신하와 친척을 상대로 무모하게 지혜와 용기를 겨루는 과정을 통해 웃음을 주는 이야기이다.

일본 요코하마 예술단은 전국 학생 댄스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여성그룹 '팡파르'와 일본 젊은 층에서부터 노년층까지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터미널'이 무대에 오른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 관계자는 "많은 분들이 공연장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남중 기자 5555knj@

광주 동구
범죄예방 '아동 안전지도' 제작·배부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지한초등학교 주변 아동대상 범죄예방과 위험환경 개선을 위해 아동 안전지도를 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안전지도는 전문 강사의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책임교사, 지한초등학교 4학년 23명의 학생이 참여해 학교 반경 500m 이내의 관공서, 공터 등 안전 사각지대, CCTV설치지역 등 학교주변 위험환경을 조사하고 지도에 표시해 학생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됐다.

이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진 안전지도는 홍보용 공책으로 제작해 전교생에게 배부하고, 학교 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에 게재할 예정이다.

또 지난 2일에는 효과적인 후속 교육을 위해 광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와 함께 지한초등학교 학생 114명을 대상으로 안전지도를 활용한 성폭력 예방 인형극 '늑대를 누가 잡았을까'를 진행해 학생들의 호응을 얻었다.

임택 동구청장은 "아동 안전지도를 통해 아이들이 학교주변의 위험요소를 정확히 인지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아이들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봉채영기자

민선7기 전남 조직개편

일자리본부·인구정책관 등 신설

전라남도가 김영록 도지사의 일자리 창출과 인구 늘리기 등 민선 7기 공약 동력 확보와 신규 행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일 민선 7기 조직개편과 관련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먼저 도는 2실 7국 1본부 체제에서 임시 조직인 일자리 정책실을 일자리 정책본부로 신설해 2실 7국 2본부 체제로 개편했다.

일자리정책본부는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과 청년 실업해소 대책, 국내·외 투자유치 등의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실·국 이하 4급 조직인 7관 7담당관 36과에서 7관 4담당관 40과 체제로 개편했다.

특히 저출산과 인구문제 극복, 도내 섬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인구 청년 정책관'과 '섬 해양 정책관'을 각각 신설했다.

김 지사의 공약인 10만 인재 키우기 프로젝트 추진 등을 위해 '희망 인재 육성과'와 '사회적 경제과'가 새로 생겼다.

김 지사의 도민 우선주의 실천에 따라 다소 어려운 국 명칭인 경제과학국은 '경제 에너지국'으로 '농림축산식품국'은 '농축산식품국'으로 '건설도시국'도 '건설교통국'으로 각각 명칭이 바뀌었다.

도는 입법 예고한 민선 7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대해 오는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전라남도의회에 제출한다.

이어 오는 26일 도의회 본회의 의결과 행자부 심의를 거쳐 오는 8월 초 관련 조례가 공포된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 2일 취임 기자 간담회에서 "일자리 정책본부장을 선임본부장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업무를 종합하고 컨트롤하도록 해 일자리 만들기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남 무안=김남중 기자

신경균 의장 김경열 부의장

보성군의회 전반기 의장단 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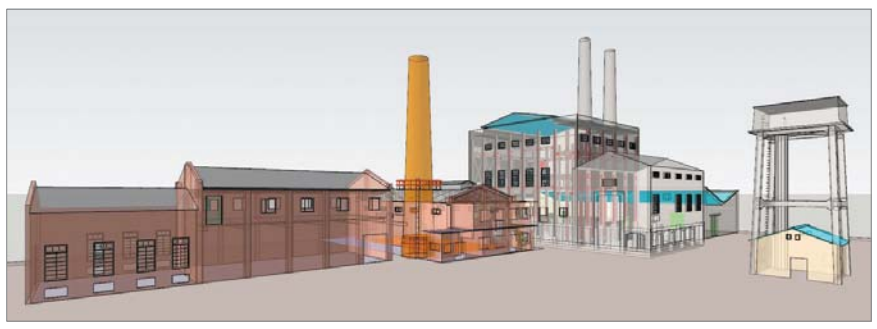
신경균 의장·김경열 부의장

제8대 보성군의회가 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고, 앞으로 4년 간 새로운 의정 활동의 출발을 알렸다.

개원에 앞서 지난 2일 제2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에는 신경균 의원(사진 왼쪽), 부의장에 김경열 의원(사진 오른쪽)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신경균 의장은 개원사를 통해 "제8대 의회는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물결에 걸맞게 상생적인 의회, 창의적인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남 구례=문쌍환기자



디지털 아카이브로 작업을 한 일산방직 /뉴시스

광주시
근대건축물 3D모델링 등 기록 보존

광주시는 4일 근대건축물 기록보존사업을 도면과 보고서뿐만 아니라 3D모델링, VR영상, 3D애니메이션 등 디지털 아카이브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 평면적인 기록보존 방식에서 벗어나 디지털 변환작업을 통해 근대건축물의 역사적 의미를 대중화하고 도시재생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광주시는 올해 1억원의 예산을 들여 대상 건물의 실측도면 제작과 3D영상을 만들 계획이다.

사업대상은 지난 1935년에 지어진 일신방직 내 발전소, 보일러실 1·2, 고가수조 등이다.

광주산업화의 시발점이 된 근대산업유산 일신방직 부지(4만3000여 평)에는 화력발전소와 집진시설, 고가수조(물탱크)와 저수지, 목조 공장건물 등 80년 이상된 건물과 구조물들이 산재해 있다. 또 1946년 직원들이 설치한 해방기념 국기게양대 등 광주 근·현대사의 숨결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광주=김남중기자